

# 대학교 본관 파사드에 나타난 연대별 디자인 표현 특성

A Study on the Periodic Characteristics of Design Expression in the Facade of the Main Administration Building in University

Author 서희숙 Seo, Hee-Sook / 정회원, 영남대학교 가족주거학과 외래교수, 공학박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esign characteristic of the facade of the main administration building in university. The main administration building which is a basic of educational facilities has various administration setups, such as the register's office, the student affairs section, the planing department, the general affair's office and so on. This building performs academic, administration, facilities management, and admissions service. Also, the building has an ideological, historical, and symbolic image, having an organic relationships with the other educational facilities. This study choose one hundred seven universities, except universities that does not provide information easily and the second campus which does not have the main administration building, as the subjects of the study. The analysis is derived from the design elements applied to facade design of the main administration building and this is divided into design principles(balance · symmetry, contrast, rhythm), the formal composition(geometrical, linear), and the style of architecture (classical architecture and modern architecture).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design characteristic of the facade of the main administration building in university has chronologically changed. First of all, in the 1940's, symmetry emphasized on the center of building, superimposition, division, pediment, and arch were marked. Then, superimposition was prominent in the 1950's and symmetry emphasized on the center of building was shown in the 1960s again. Flat roof was in the 1970's, 1990s and 2000's. Finally, pediment was dominant in the 1980's. The design elements of the main administration building can be samples of chronological styles of architecture. Facade design, with proper design of the past and recent times, includes the meaning that achieve the great purpose of the university by emphasizing visual images.

Keywords 대학교 본관, 파사드, 디자인 원리, 형태적 구성, 건축양식  
Main Administration Building in University, Facade, Design Principles, Morphological Composition, Architectural Style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대학은 진리를 탐구하고 학문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대학 구성원들 간의 다양한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곳이다. 대학의 구성원들을 담고 있는 교사시설은 교육기본 시설(강의실, 실험실습실, 교수연구실, 행정실, 도서관, 학생회관, 대학본부 및 그 부대시설), 지원시설(체육관, 강당, 전자계산소, 실습공장, 학생기숙사 및 그 부대시설), 연구시설(연구용 실험실, 대학원 연구실, 대학부설 연구소 및 그 부대시설)과 대학 또는 학과의 필요에 의하여 설치될 수 있는 세부 부속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 기본시설인 대학본관은 대학 내의 교무, 학생, 기획, 총

무(사무) 등의 행정기구를 두어 학사, 행정, 시설관리, 입학 등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다른 교사시설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대학본관은 대학의 이념, 정의, 교내 타 건축물과의 관계에 대한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척도이며, 대학의 상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건물로써 물리적 측면과 형태적 측면을 고려하여 계획하였기에 시대적 상황에 따라 혹은 건축사적 흐름에 따라 다양하게 파사드의 디자인이 표현되어 왔다.<sup>2)</sup> 대학본관이 과거와는 달리 상징적 역할이 상쇄되었다고

1) www.mest.go.kr, "2008 학교법인설립허가 및 대학설립인가 신청 요령"의 <별표 2>교사시설의 구분(제4조제1항관련)을 발췌함.  
2) 강철민 외 2명, 대학교 본관 파사드의 형태적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16권 8호, 2000, pp.1-2

하나 캠퍼스의 타 시설들에 대한 행정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유만으로도 대학본관은 대학 내 중요한 건물이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대학의 교사시설 중 교육기본시설이면서 행정적 역할이 분명한 본관 건물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대학본관 파사드에 나타나고 있는 디자인 원리, 형태적 구성방법, 건축양식의 요소에 대하여 각 연대별 디자인 특성을 파악한다. 이는 현재까지 본관 파사드의 디자인 경향을 알아봄과 동시에 본관 파사드 계획 시 디자인을 모색하기 위한 자료 제공에 목적을 두고 있다.

## 1.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전국 4년제 대학교 225개교<sup>3)</sup> 중 본관의 준공년도, 사진자료가 미비하거나 본관이 없는 제2 캠퍼스를 제외한 107개 대학교의 파사드를 최종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표 1>

<표 1> 조사대상 대학교의 현황

구분	20년대	30년대	4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계
서울	1	2	-	4	4	11	3	2	-	27
부산	-	-	-	-	-	1	2	5	1	9
인천	-	-	-	-	-	1	-	-	1	2
대전	-	-	-	-	-	-	1	1	1	3
대구	-	-	-	-	1	-	1	2	-	4
울산	-	-	-	-	-	-	-	1	1	2
광주	-	1	-	1	-	-	1	5	1	9
강원	-	-	-	1	-	-	1	2	1	5
경기	-	-	-	-	-	1	3	3	5	12
경북	-	-	-	-	-	1	3	6	-	10
경남	-	-	-	-	-	-	3	2	-	5
전북	-	-	-	-	1	-	1	3	-	5
전남	-	-	-	-	-	-	-	3	1	4
충북	-	-	-	-	-	-	2	1	3	6
충남	-	-	-	-	1	-	1	1	1	4
제주	-	-	-	-	-	-	-	1	-	1
계	1	3	0	6	7	15	22	38	15	107

\* 전체 대학교의 수는 일부 대학교의 제 2캠퍼스도 포함된 수

본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대학교 본관의 역할 및 파사드의 개념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고,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하여 파사드 디자인의 조형요소를 디자인 원리, 형태적 구성방법, 건축양식적인 측면으로 구성한 후 세부적인 분석항목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분석항목은 각 대학 홈페이지(연혁, 캠퍼스 소개), 온라인자료실과 2009년 12월에 직접방문으로 자료를 수집한 최종 107개 4년제 대학을 조사대상<sup>4)</sup>으로

3) <http://search.naver.com>(전국 4년제 대학교 225개교: 서울 44, 부산 13, 인천 6, 대전 10, 대구 5, 울산 2, 광주 10, 강원 10, 경기도 34, 경북 20, 경남 12, 전북 11, 전남 11, 충북 12, 충남 22, 제주도 3)

4) 225개 대학의 홈페이지, 온라인 자료실, 직접방문에 의한 자료조사에서 준공년도는 있으나 사진이 제공되지 않은 대학, 사진은 있으나 본관의 준공년도가 명확하지 않은 대학 혹은 사진은 제공되었으나 파사드의 디자인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조사대상은 제외하였음.

선정하여 분석되었다. 분석방법은 도출된 세부항목<표 3>을 중심으로 조사대상 대학교 본관 파사드에 나타나고 있는 각 디자인 분석항목에 대한 적용빈도가 높은 시기를 파악하였고 또한 각 연대별 분석항목에 나타난 대학 본관 파사드의 연대별 디자인 특성을 알아보았다.

## 2. 이론적 고찰

### 2.1. 대학교 본관의 개요 및 역할

1897년 10월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배위량에 의해 개설된 학당의 모체인 숭실학당이 1905년 대학으로 승격되면서 한국 최초의 대학<sup>5)</sup>이 되었다. 해방을 전후하여 대학설립이 증가되면서 본관의 역할 또한 증가되었다. 대학이 진리를 탐구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본래의 역할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활동, 대학 구성원간의 인간관계 실현, 공동체 의식부여 등의 사회적으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곳<sup>6)</sup>이라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의 중심이 되는 곳이 본관인 것이다. 또한 일부 대학교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물로써 중요성을 띄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지하 1층 지상 3층의 석조 건물로 1921년 착공되어 1925년에 준공된 연세대학교 본관 언더우드관은 사적 제276호, 건축가 박동진이 설계하여 1933년 9월에 착공되어 1934년 9월에 준공된 고려대학교 본관은 사적 제285호 지정되었다. 본관 중앙 부분에 5개 박공지붕으로 된 6층 규모의 건물로 1951년에 준공된 조선대학교 본관은 등록문화재 제 94호, 광주교육대 본관은 등록문화재 제97호로 지정되어 있다.



연세대(27) 고려대(34) 광주교육대(39) 조선대(51)

<그림 1> 역사적 가치를 지닌 대학본관

### 2.2. 파사드의 개념

건물의 정면을 의미하는 파사드는 정면과 형태의 합성어로 건물의 기능과 중요성을 전달하는 가장 본질적인 요소로서 그 당시의 문화적 상황을 표현하고 장식의 효용성과 기능성을 구현한다.

건물의 입면 즉 벽은 건물내부의 용도를 외형으로 표출함으로써 일반인에게 건물의 용도를 인식시키고 이미지를 남기는 역할을 하며, 건물의 미적 아름다움과 공간

5) 네이버 백과사전, 숭실대학교

6) 문지원·하재명, 캠퍼스 보행자동선 개선을 위한 보행태도 분석에 관한 연구; K대학 캠퍼스 사례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18권 10호, 2002, p.201

의 성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벽은 단순하고 물리적 실체에서 벗어나 상징적 의미까지 부여하며 영역과 영역을 구분하는 중요한 디자인 도구이다. 어떤 특정영역에 대한 장소의 성격을 결정하는 요소로서 벽체에 부여되는 장식과 단순함의 정도에 따라 건축양식이 판별되기도 한다.<sup>7)</sup>

### 2.3. 디자인 표현 특성을 위한 분석항목 도출

#### (1) 분석항목 도출을 위한 선행연구 고찰

건축물은 내부와 외부 모든 부분에 디자인의 기본요소(점, 선, 면, 형태, 색, 질감, 문양), 디자인의 원리(스케일, 비례, 대칭·균형, 대비, 리듬), 형태를 구성하는 방법, 건축양식의 조합과 그 외 여러 요소에 의하여 시대적 흐름과 다양한 미를 파사드에 표현하고 있다. 디자인의 기본요소(점, 선, 면의 구성방법)는 저자들의 분류방법이 유사하나 구성요소나 원리 등에 의한 분류방법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 <표 2>와 같다.

김홍기(2002)는 디자인의 원리를 비례, 대칭, 대비, 리듬, 스케일과 척도로 구분하고, 특히 리듬의 형성요인에 있어서는 매스, 기둥과 벽의 상관관계에 의해 표현되는 구조적 리듬, '브리즈 슬레이유'라는 차양벽에 의한 개구부의 리듬으로 구분하였고, 리듬의 조형적 효과로는 열주에 의한 리듬과 낭만적 감정을 표출하는 불규칙한 리듬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형태를 구성하는 법칙으로 기하학적 구성, 유기적 구성, 선형 구성, 구심형 구성으로 분류하였다.<sup>8)</sup> 김정재(2002)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원리를 통일, 비례, 균형, 대비, 리듬, 조화로 구분하였고 형태는 인간의 사고활동으로 이루어진 기하학적이거나 추상적인 형태와 현실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실물의 형태로 구분하며 그 형태는 방향과 각도에 따라 변화하는 공간에서 윤곽선의 이동으로 생긴 면이 조형건축에 적용된다고 언급하였다. 일반적인 조형이론의 기본형인 원, 삼각형, 사각형은 구, 원통, 피라미드, 육면체 등의 이상적인 입체가 되며 그 형태의 삭제 혹은 부가에 의하여 건물 전체 혹은 입면에 다양한 변화를 줄 수 있다고 하였다.<sup>9)</sup> 신성영(2004)은 디자인의 구성원리를 조화와 파조, 대비, 통일과 다양성, 반복, 리듬, 점이, 균형과 대칭, 비례, 질서규범, 강조, 구조, 장식 등으로 구분하였고, 대조, 크기, 반복 등을 사용하여 건축에 특유의 개성을 부여하며 형태 전체에 활력을 줄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sup>10)</sup> 강철민(2000)은 파사드의 구성요소를 지붕부, 벽면부, 기단부로 구성하여 형태적인 특성을 분석하였고 파사드의 형태를

고적적 요소(박공지붕, 페디먼트, 열주)와 모더니즘적 요소(자유스런 평면, 필로티, 평지붕)로 구분하고 있다.<sup>11)</sup>

<표 2> 분석항목 도출을 위한 선행연구 고찰

저자	내 용		
김홍기 (2002)	디자인 원리	비례·대칭	대칭적 균형 비대칭적 균형
		대비	건물과 자연과의 대비 형태적 대비 솔리드와 보이드의 면 대비
	리듬	형성 요인	매스의 중첩 기둥과 벽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벽과 기둥의 분리 혹은 일체로 일부 돌출되어 표현되는 구조적 리듬 '브리즈 슬레이유'라는 차양벽에 의한 개구부의 리듬
			매스의 분절
		조형적 효과	열주에 의한 규칙적 리듬과 변화 다양성에 따른 낭만적 감정을 표출하는 불규칙한 리듬
	스케일, 척도		
	형태 구성 법칙	기하학적 구성	격자형 구성, 사선그리드 구성, 원형그리드 구성
		선형구성	수평구성, 수직구성, 사선구성
		유기적 구성	
	김정재 (2002)	디자인 원리	통일
비례·균형			중고형 대칭, 양고형 대칭, 좌우대칭, 동형의 무게 비대칭, 이형의 비대칭
대비			형태, 크기, 색채 및 질감, 방향, 위치, 공간, 무게
리듬, 조화			
형태	기하학적이거나 추상적인 형태 현실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실물이 가진 형태(자연물이 가진 복잡하고 불규칙적인 형태인 구상적인 형태)		
신성영 (2004)	디자인 원리	조화와 파조, 대비, 통일과 다양성, 반복, 리듬, 점이, 균형과 대칭, 비례, 질서규범, 강조, 구조, 장식	
강철민 (2000)	파사드 구성 원리	지붕부	평지붕, 박공지붕, 혼합지붕, 절충지붕
		벽면부	형태유형 평면(격자, 단일벽면, 분절, 대립)과 곡면
		창호부	수직, 수평, 혼합, 피막, 격자
		현관부	평, 돌출, 후퇴, 필로티
기단부	계단, 계단과 램프혼합형, 단차		

#### (2) 디자인 표현 특성을 위한 분석항목 도출

본 연구에서는 분석항목을 크게 디자인 원리, 형태를 구성하는 방법으로 구성하고 건축양식의 요소를 추가하여 구성하였다. 디자인 원리는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균형·대칭, 대비, 리듬으로 정하였으며 균형·대칭은 김정재의 선행연구에 의하여 구성하였다. 대비는 형태, 크기, 면 대비에 국한하고, 강철민의 고전적 요소와 모더니즘적 양식을 토대로 고전과 근대양식의 절충 형태를 양식대비로 구성하였다. 리듬과 형태를 구성하는 방법은 김홍기의 연구를 토대로 중첩, 분절, 개구부, 기둥으로 구성하였으며, 형태의 구성방법은 전체 조사대상에 전혀 적용된 사례가 없는 유기적 구성을 제외하고 기하학적구성과 선형구성으로 분류하였다. 기하학적구성은 수직, 수평그리드 구성에 의한 격자의 평면적 구성과 김정재의 이상적 입체를 입체구성으로 구분하였으며 선형구성은 수직과 수평구성으로 구성하였다. 사진 자료의 한계성으로 명확성이 떨어지는 색채, 질감, 재료

7) 김홍기, 건축디자인론, 기문당, 2002, pp.268-286

강철민 외 2명, Op.cit., 2000, p.2


8) 김홍기, Ibid., pp.102~309

9) 김정재, 건축의장론, 기문당, 2002, pp.45-46, p.55

10) 신성영, 건축의장론, 구미서관, 2004, p.128

11) 강철민 외 2명, Op.cit., 2000, p.3, p.6

<표 3> 대학교 본관 파사드 디자인의 분석항목

항 목		내 용	
디자인 원리	균형 및 대칭	대칭적 균형	힘의 원리 반영, 질서와 권위에 대한 정신적 의미를 내포, 건물입면의 이 등분지점에 중심축(중심성) 존재, 평형성, 시대정신 내포.
			중고형 대칭(A) 
		비대칭적 균형	대칭성이 없는 경우
	대비	형태	각을 이루는 다른 형태의 대비
		크기 면	동일한 형태의 크기에 따른 대비 솔리드+보이드
		양식	두개의 서로 다른 양식의 대비(고전+근대)
리듬	중첩	기존형태에 다른 형태를 겹쳐 덧씌우는 방법, 입체감과 깊이감을 강화, 동서성·침투성·불연속·투명성·다층의 의미	
	적층	층층이 쌓아서 올려지는 방법	
	분절	건축물의 입면에 요철을 주어 수직적 리듬감을 줌.	
	기둥	기둥의 돌출에 의한 구조적 리듬(기둥과 벽면의 분리형, 기둥과 벽면의 일체형)	
	개구부	창문부분에 돌출한 차양벽의 수직패턴에 의한 리듬	
형태적 구성방법	기하학적 구성	도구를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디자인된 형태로서 직선, 사선, 원통을 이용하여 체계적이 고 조직적인 방법으로 다양한 형태를 자유롭게 조작하며, 시각적 명확성과 대상물에 체 계와 질서를 부여	
	선형 구성	평면구성 (격자형, 단일벽면) 입체구성 (구, 원통, 피라미드, 육면체)	
양식	고전	페디먼트(박공)	전통적이고 고전적 이미지를 표출하는 조형방법, 친근함과 편안함을 줌.
		열주	수직적 리듬감을 통해 강한 권위적 질서를 표출
		아치	개구부의 공간을 곡면화한 구조
		돔	건물 중앙 대칭축의 선상에 위치하여 중심을 알리는 권위적 표현 기호(위엄성), 신, 하늘과 우주를 상징하는 기호
		3분법적 구성	주초, 주신(열주), 주두(박공지붕)
		멀론(merlon)·총안(crenel)	성곽 위에 설치된 요철형태
	망대(bartizan)	벽이나 탑에서 내밀고 있는 작은 탑	
근대(모더니즘)	필로티	건물전체 또는 일부를 지상에서 기둥으로 들어올려 건물을 지상에서 분리시켜 만들어진 공간 또는 그 기둥부분	
평지붕	현대적 감각을 주는 조형요소	중세의 성(요새)에서 볼 수 있는 형태 <sup>12)</sup>	

등의 항목은 제외하였으며, 건축양식의 구성요소는 강철  
민의 연구에서 언급하고 있는 고전적 요소와 모더니즘적  
양식을 중심으로 항목을 보완하여 구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세부적인 분석항목은 <표 3>의 내용과 같다.

### 3. 디자인 항목에 대한 연대별 표현 특성

#### 3.1. 디자인 원리

##### (1) 균형 및 대칭

균형 및 대칭은 대칭적 균형과 비대칭적 균형으로 분  
류하였고 비대칭적 균형은 건물의 중심부에 출입구와 코  
어를 두어 중심부를 강조한 중고형 대칭, 중심부보다는  
측면부를 강조하여 'H'자 형태를 띠는 양고형 대칭과 중  
심성은 있으나 일부 비대칭적인 요소를 포함한 경우로  
분류하였다.

중고형 대칭은 경북대<표 4>, 창원대<표 4>, 경운대  
<표 8> 본관에 잘 표현되어 있으며, 양고형은 대구교육  
대<표 4>와 인하대<표 16>의 본관에서 보여주고 있다.  
동신대<표 4>, 숭실대<표 4>는 좌우 매스의 형태나 출  
입구의 위치 등 일부요소에 의하여 완전대칭을 벗어난

형태이나 전체 파사드는 중심성에 의한 균형 및 대칭을  
이루고 있다.

중심을 강조한 중고형은 60년대 71.4%로 적용 사례가  
높았으나 70년대에 들어서면서 6.7%로 적용사례가 현저  
히 줄었다가 이후 서서히 증가하여 2000년대 준공된 본  
관 파사드에는 60%가 중고형을 띄고 있다. 양고형은  
40년대 이전과 60년대를 제외하고는 적용빈도가 낮고 90  
년대부터 그 형태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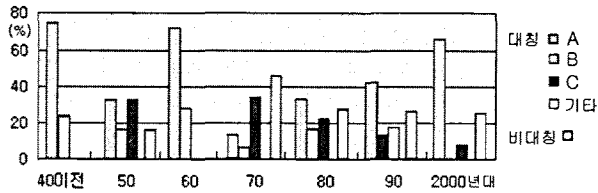
1970년대에는 비대칭적인 균형에 의한 디자인 원리의  
적용빈도가 높게 조사되었으나 그 외 연대에서는 대칭적  
요소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칭  
성은 딱딱함이나 정적인 면을 지니기도 하지만 안정감,  
엄숙함, 완고함 또는 권력과 질서를 상징함으로 각 대학  
의 상징성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본관건물에 적용했  
을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본관 파사드의 중심성을 강조  
하기 위하여 지붕의 돔<표 4-경북대, 표 6-동명대, 표  
8-경운대>, 출입부분의 페디먼트, 열주<표 5-세명대, 표  
6-전주대, 표 8-계명대, 경희대>등을 적용하여 중심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1990년대에는 <그림 2>의 기타에 분류한 것과 같이  
완전한 좌우대칭을 보이고 있으나 중고형과 양고형 대칭  
의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형태<표 7-서울시립대, 표 16-  
성균관대, 18.2%>가 나타나는 시기이다.

12) CHING, FRANCIS D. K., 강병희 외 4명 공역, 건축·인테리어  
시각 표현 사전, 도서출판국제, 1999, p.99

<표 4> 대칭과 비대칭을 적용한 대학본관 파사드 현황

대칭적 균형			비대칭적 균형
중고형(A)	양고형(B)	(C)	
경북대(60)	대구교육대(80)	승실대(88)	한국교원대(89)
창원대(83)	인하대(71)	동신대(93)	남부대(2005)



<그림 2> 디자인 원리(균형·대칭)의 적용 빈도율

(2) 대비

대비는 형태대비, 크기대비, 면대비, 고전주의와 근대주의 양식에 의한 대비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형태대비는 <표 5>의 호남대 본관이나 <표 7>의 한국항공대의 본관과 같이 원통과 육면체를 적용한 사례가 있다. 동덕여대 본관<표 6>은 중심부의 멀론과 총안이 있는 육면체 형태에 당대인 원통이 조합되어 있고 중심부의 멀론과 총안의 평면적인 지붕형태와는 달리 정면부 좌우측 끝부분의 지붕에 박공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원통과 육면체에 의한 형태대비는 2007년에 준공된 한국항공대 <표 7>의 본관에 잘 표현되어 있다. 그 형태는 파사드의 모서리 부분에 원통의 형태를 두어 전체 육면체 형태와 대비를 이루며 디자인이 강조되고 있다.

동일 형태지만 크기의 정도를 달리하여 적용한 크기대비는 서울신학대<표 5>의 본관 파사드에 표현된 1층부와 2층부의 아치크기를 달리하여 대비한 경우와 상명대 천안캠퍼스 본부<표 5>와 같이 크고 작은 아치를 중심부와 비중심부로 구분하여 대비한 표현방법도 있다.

슬리드와 보이드의 가벼운 느낌에 의한 면대비는 중심부와 모서리 부분에 유리를 이용한 경북외국어대<표 5>의 본관 파사드에서 잘 나타나 있고, 창원대 본관<표 4>은 슬리드와 보이드에 의하여 파사드가 디자인되어 있으나 면에 의한 대비보다 선형에 의한 대비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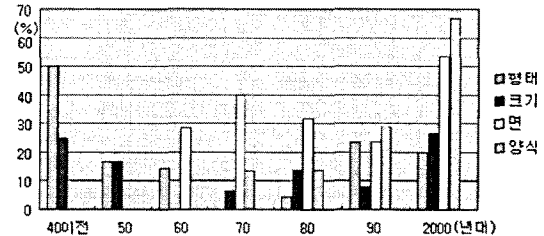
고전주의와 근대주의 양식이 혼합된 양식 대비는 고전주의의 모티브인 페디먼트(박공), 열주(기둥), 3분법 구성, 돔, 아치와 근대양식(모더니즘)의 모티브인 평지붕과 필로티의 구성을 혼합한 형태를 중심으로 조사되었다. 70년대 이전에는 고전과 근대 양식이 혼합되기도 명쾌한 양식을 추구해 왔으나 모더니즘에 의한 평지붕 건물

이 강세이던 70년대부터 서서히 양식대비가 시작되어 2000년대에는 66.7%가 고전양식을 접목하였으며 70년대 이후 약해졌던 중심성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40년대 이전에는 형태나 크기대비가 우세하였으나 2000년대에 이르러 면이나 양식대비가 우세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3>

<표 5> 대비를 적용한 대학본관 파사드 현황

형태(원통+육면체)			
호남대(80)	인천대(2009)	광주과학기술원(93)	부산가톨릭대(97)
크기(아치)		면(보이드+슬리드)	
서울신학대(74)	상명대(85)	경북외대(97)	세영대(2000)



<그림 3> 디자인 원리(대비)의 적용 빈도율

(3) 리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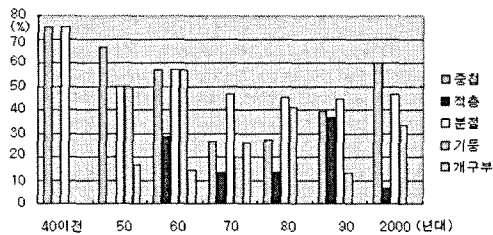
리듬은 시각적으로 강하거나 약한 조형적인 요소가 반복 또는 배열될 때 그 효과가 생기며 질서와 분위기도 형성된다. 중첩이나 적층에 의한 리듬은 반복적으로 모티브를 적용하면 리듬의 효과가 극대화되지만 반복성이 배제된 경우에는 본관 파사드에 시각적인 강조의 효과만 주게 된다. 특히 세종대 본관<표 6>은 적층과 분절에 의한 리듬이 잘 나타나고 있는 건물이며, 대구가톨릭대 <표 6>와 대구한의대<표 16>의 본관 파사드는 모더니즘 건축의 단조로움에 분절과 필로티의 반복에 의한 리듬감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

전주대 본관<표 6>은 고전건축의 기본 양식인 열주를 적용하여 열주가 주는 수직적인 리듬감으로 행정의 중심 건물인 본관의 권위를 표현하는 듯하다. 광주대의 본관(행정관, <표 6>)은 벽과 일체화된 기둥과 모서리의 망대를 적용하여 벽면에 수직적인 리듬감을 살려주고 있다. 개구부의 리듬감은 서울신학대<표 5>와 상명대<표 5>와 같이 아치형태의 반복적인 리듬감도 있지만 르 꼬르뷔제가 건물 입면에 적용하여 열주에 의한 수직성과는 달리 근대양식의 수직성을 표현하고 있는 '브리즈 슬레이프'의 수직패턴을 적용한 사례를 조사하였다. 대표적 사례는 김종업이 설계한 서강대 본관(1959)이 있으며

1950년대에서 1970년대에 적용되고 있다. 그 외 건국대 본관<표 7>은 정면부를 수평구성으로 측면부를 수직구성으로 표현하여 선형대비를 보여주고 있다. 서울대와 영남대<표 8>는 지붕이 없는 근대주의 건축의 형태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표 6> 리듬을 적용한 대학본관 파사드 현황

중첩		적층		적층·분절	
분절		기둥		개구부	
벽면과 기둥분리형		벽면과 기둥일체형			



<그림 4> 디자인 원리(리듬)의 적용 빈도율

### 3.2. 형태적 구성 방법

#### (1) 기하학적 구성

기하학적 구성방법은 도구를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시각적 명확성과 대상물에 체계와 질서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평면구성과 입체구성으로 구분된다. 평면구성은 격자형이나 입면의 평면성을 강조하고 있으며<표 7-서울시립대>, 입체구성은 구, 원통<표 7, 그림 5-한국항공대>, 피라미드, 육면체 등의 형태가 적용된 구성방법이다. 특히 원통이나 피라미드는 1990년대 준공된 대학교 본관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입체적 구성방법이다. 평면구성은 70년대 53.3%로 가장 많이 적용된 방법이었으나 이후 그 적용빈도가 낮아져 2000년대에 이르러 13.3%만이 적용되고 있다. 입체구성은 70년대 적용빈도가 매우 낮았으나 이후 점차 그 적용 빈도가 높아져 2000년대에 이르러 73.3%로 입체구성이 적용된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표 7, 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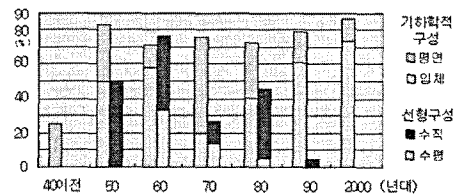
#### (2) 선형구성

선형구성은 멀리언 혹은 기둥에 의한 수직구성과 스펀드럴과 창부분에 의한 수평구성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수직구성은 창이나 기둥(열주)에 의하여 수직적인 형태가 파사드에 명확히 나타나는 조사대상으로 국한

하여 조사하였다. 50년대(50.0%)와 60년대(42.8%)에는 적용빈도가 높았으나 이후 점차 적용빈도가 낮아지고 있다. 수평구성은 1960년대 33.3%, 70년대에 이르러 13.3%가 적용되었으나 1990년대 이후 수평에 의한 디자인이 표현된 사례는 조사되지 않았다.

<표 7> 형태적 구성방법을 적용한 대학본관 파사드 현황

기하학적 구성		선형 구성	
평면구성	입체구성	수직구성	수평구성
서울시립대(90)	한국항공대(07)	성신여대(78)	중앙대(67)



<그림 5> 형태적 구성방법에 의한 적용 빈도율

### 3.3. 건축양식의 구성요소

#### (1) 고전양식

고전양식은 그리스·로마시대 건축의 구성요소로 전체 혹은 부분적인 상호관계에 대한 비례에 근본을 둔 예술 규범이다. 그 모티브는 페디먼트(박공), 기둥(열주), 박공 지붕의 주두·열주에 의한 주신·주초로 이루어진 3분법적 구성으로 이루어진다. 건물 개구부의 기둥과 기둥의 구조에 의해서 생겨난 곡면 형태인 아치는 로마시대의 바실리카, 기념문, 수도교, 콜로세움에서 사용되었고, 돔은 비잔틴의 대표적 건물인 성소피아성당의 펜던티브 돔, 르네상스시대의 피렌체 대성당의 돔 등이 모방 혹은 일부 변형된 형태로 오늘날에 이르러 적용되고 있다. 망대와 멀론, 총안은 적의 기습에 대비하여 활이나 돌을 쏘는 방어목적으로 세워졌으나 오늘날에는 장식적인 모티브로 사용되고 있다.

대학본관에 적용된 페디먼트는 60년대까지 50%이상 파사드에 적용되었으나 70~80년대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후 20%정도만 적용되고 있다. 열주는 50년대 등장한 후 그 빈도는 높지 않으나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모티브이다. 60년대 적용되기 시작한 돔<표 4-경북대>은 90년대에 준공된 경운대<표 8>, 동명대<표 6>, 인제대 본관에 적용되어 본관 파사드에 드물게 나타나고 있다. 아치형태는 창문<그림 1-고려대>, 출입구<그림 1-연세대, 표 6-동덕여대>, 개구부 및 벽면<표 5-서울신학대>에 적용되고 있고 건물의 중심성을 표현<표 8-수원대>하기 위한 디자인으로 이용되고 있다. 멀론과 총안은 동덕여대 본관<표 6>에 적용된 이후 그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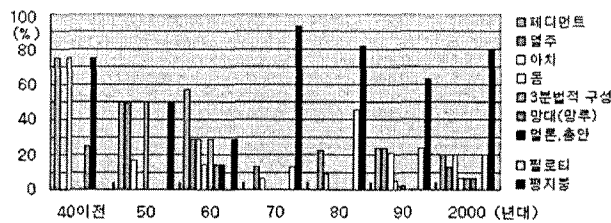
례가 조사되지 않았으나 망대는 동덕여대 본관 이후에도 광주대 신본관<표 6>에 적용되고 있다.

(2) 근대양식

근대건축의 대표적 양식인 모더니즘은 평지붕과 필로티가 주가 되는 조형방식이다. 70년대부터 적용된 필로티는 70년대 13.3% 적용된 이후 지속적으로 20%대의 사례를 보이고 있다. 평지붕은 50년대부터 적용되어 70년대에 이르러 93.2%로 타 연대보다 가장 많이 적용되어 모더니즘의 유행 시기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표 8> 양식적 측면의 디자인을 적용한 대학본관 파사드 현황

항목	현황사진	항목	현황사진
고전	페디먼트 계명대(96)	열주, 3분법구성 경희대(56)	
	돔 경운대(96)	아치 수원대(88)	
	망대(망루) 동덕여대(67)	멀론과 총안 고려대(34)	
근대	필로티, 평지붕 서울대(74)	평지붕 영남대(77)	



<그림 6> 양식적 측면에 의한 적용 빈도율

4. 대학본관 파사드의 연대별 디자인 표현 특성

4.1. 1920년-1940년대

한국인 단체의 교육활동은 일제에 의해 제약을 받았으나 서양 선교사들의 제약은 다소 적어 그들에 의해 대학이 설립되었다. 이 시기에 건립된 연세대나 고려대는 역사적 의의가 깊은 건물로써 본관 파사드 중심부에는 중세 요소에서 볼 수 있는 멀론과 총안, 망대의 형태를 적용하여 수직성에 의한 상승감을 표현하고 있다.

디자인 원리는 중심부가 돌출되어 강조된 중고형 대칭과 중첩과 분절에 의한 리듬감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

다. 연세대는 중심부가 강조된 중고형 대칭을, 고려대와 이화여대는 파사드의 외곽부가 강조된 양고형 대칭이 적용되었다. 고려대는 외곽이 강조되었으나 그 중심부가 보다 더 강조된 양고형을 띄고 있는 중고형이며 이화여대는 중심부가 강조되었으나 외곽이 강조된 양고형 대칭을 띄고 있다. 이 시기 파사드의 가장 큰 특징은 좌우대칭에 의한 질서와 중심성이 강하게 표현된 것이다.

형태적 구성방법의 항목들은 적용되지 않았으나 건축양식의 구성요소는 1개교를 제외하고 박공지붕과 주출입구의 아치형으로 출입문을 강조하고, 멀론과 총안은 3개교(75%)에 적용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항목은 아니나 1930년대의 본관 지붕에는 지붕창<sup>13)</sup>으로 리듬감을 주고 있으며 망대의 형태를 그대로 적용한 경우는 1개교(25%)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형태적 구성방법보다 고전주의 양식, 좌우대칭, 중첩과 분절에 의한 리듬감이 강조되고 있다.

<표 9> 1940년대 이전 본관 파사드의 디자인 표현

디자인 원리	균형대칭			대비			리듬				개구부		
	대칭균형			비대칭	형태	크기	면	양식	중첩	적층		분절	기둥
	A	B	C										
빈도율 (%)	75.0	25.0	-	-	50.0	25.0	-	-	75.0	-	75.0	-	-
형태적 구성	평면구성			입체구성			선형 구성		수직구성				
빈도율	-			-			-		-				
건축 양식	고전						근대						
	박공	열주	아치	돔	3분법적구성	망대(망루)	멀론, 총안	필로티	평지붕				
빈도율	75.0	-	75.0	-	-	25.0	75.0	-	-	-			

4.2. 1950년대

1950년대에는 한국전쟁에 의하여 파괴된 건축물의 복구사업이 진행되었던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설계할 능력이 부족한 건축가들에 의해 국제주의 양식의 건축이 무비판적으로 도입되어 설계되었다.<sup>14)</sup>

이 시기의 디자인 원리는 1940년대까지 좌우대칭만을 적용하던 것과는 달리 비대칭성을 강조한 건물이 16.7% 나타났으며 기둥과 개구부(브리즈 솔레이유)의 반복에 의한 리듬감이 표현되었다. 또한 조사대상 대학의 50%가 열주를 적용하고 있다. 이 중 33.3%는 기둥과 벽면이 분리된 형태이고 16.7%는 벽면과 기둥이 일치하여 일부 돌출한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

형태적 구성방법은 1940년대 이전과는 달리 기하학적 구성의 평면과 입체구성, 수직의 선형구성이 적용되고 있다. 선형구성의 경우 신고전주의의 모티브로 적용되고 있는 열주에 의하여 수직적 구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3) 지붕창은 본 연구의 조사대상 중 고려대, 이화여대, 한양대 3개교에만 적용되어 분석항목에서 제외하였음.

14) 방일영문화재단, 우리건축 100년, 현암사, 2001, p.223

건축양식의 구성요소는 1940년대까지 적용빈도가 높았던 박공과 아치의 적용빈도는 낮아졌으나 열주 및 3분법적 구성이 적용되면서 경회대<표 8>, 한양대<표 16>, 한국외국어대<표 16>의 본관 파사드는 신고전주의 경향이 강하게 표현되고 있다. 또한 국제주의 양식의 영향으로 조사대상의 50%가 본관의 지붕에 평지붕을 적용하고 있다.

1950년대의 디자인은 박공, 열주, 3분법적 구성에 의한 고전주의 양식의 기본 형태 및 근대주의 건축의 대표적 요소인 평지붕의 적용이 유사한 빈도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시기의 본관 파사드에 표현된 방법은 중첩에 의한 리듬감이 가장 우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0> 1950년대 본관 파사드의 디자인 표현

디자인 원리	균형대칭			대비					리듬					
	대칭균형			비대칭	형태	크기	면	양식	중첩	적층	분절	기둥	개구부	
	A	B	C											
빈도율 (%)	33.3	16.7	33.3	16.7	16.7	16.7	-	-	66.6	-	50.0	50.0 (33.3)	16.7	
형태적 구성	기하학적 구성				선형 구성									
구성	평면구성			입체구성		수평구성			수직구성					
빈도율	33.3			50.0		-			50.0					
건축 양식	고전												근대	
	박공	열주	아치	돔	3분법적구성	망대(망루)	멀론, 총안	필로티	평지붕					
빈도율	50.0	50.0	16.7	-	50.0	-	-	-	-	-	-	-	50.0	

기둥 : 00.0(00.0) 기둥과 벽의 일체형과 분리형을 포함(분리형)

### 4.3. 1960년대

1960년대는 조국근대화운동으로 본격적인 산업화, 도시화와 같은 근대 특유의 상황이 도래한 시기이며 서구 현대건축의 관심과 정보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던 시기이다.<sup>15)</sup> 기존의 국제주의 양식에서 벗어나 건축에 지역성, 역사성, 전통성<sup>16)</sup>을 표현하고자 시도하였으나 대학본관 파사드에는 이러한 표현은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950년대에 대칭 균형이 다소 완화되고 비대칭 균형이 나타난 것과는 달리 이 시기의 균형 대칭은 양고형 대칭과 중고형 대칭만이 나타나고 있어 고전주의의 특징인 중심성과 기둥이 주는 수직성에 의한 리듬감이 강조되고 있다.

형태적 구성방법은 1950년대와 비교하여 평면구성의 적용빈도는 줄었으나 입체구성의 적용빈도는 높아졌다. 선형구성은 열주에 의한 수직구성과 스펀드럴에 의한 수평구성이 적용되고 있다.

건축양식의 구성요소에서는 돔이 본관의 지붕에 처음 등장<표 4-경복대>하고 있다. 50년대에 적용되지 않았던 망대, 멀론과 총안 등도 적용되었고 평지붕의 적용 빈도는 감소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 가장 우세한 표현 방법은 중고형에 의한 대칭적 균형으로 조사되었다.

15) 강혁, 근현대건축연구의 흐름과 시대성(한국건축사 연구 2이론과 쟁점), 도서출판 발원, 2003, p.299

16) 방일영문화재단, Op.cit., 2001, p.237

<표 11> 1960년대 본관 파사드의 디자인 표현

디자인 원리	균형대칭			대비					리듬					
	대칭균형			비대칭	형태	크기	면	양식	중첩	적층	분절	기둥	개구부	
	A	B	C											
빈도율 (%)	71.4	28.6	-	-	14.3	-	28.6	-	57.1	28.6	57.1	57.1 (28.6)	14.3	
형태적 구성	기하학적 구성				선형 구성									
구성	평면구성			입체구성		수평구성			수직구성					
빈도율	14.3			57.1		33.3			42.8					
건축 양식	고전												근대	
	박공	열주	아치	돔	3분법적구성	망대(망루)	멀론, 총안	필로티	평지붕					
빈도율	57.1	28.6	28.6	14.3	28.6	14.3	14.3	-	-	-	-	28.6		

기둥 : 00.0(00.0) 기둥과 벽의 일체형과 분리형을 포함(분리형)

### 4.4. 1970년대

1970년대에는 근대화가 추진되어 건축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건축의 양적, 질적 변화 및 최신 동향의 수입에 대한 관심 증가로 모더니즘 건축을 이해하는데 영향을 주었다.<sup>17)</sup>

디자인 원리의 경우 중심성은 있으나 창, 매스 등에 의하여 좌우대칭에서 벗어난 대칭적 균형과 입면의 분절에 의한 리듬감이 강조되고 있다.

형태적 구성방법은 기하학적 구성과 선형구성 모두 적용되고 있으나 특히 평면구성의 적용빈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전주의 양식은 열주와 아치만 표현되었다. 필로티가 적용<표 8-서울대>되었고 93.2%의 본관에 평지붕이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1970년대는 모더니즘 건축의 경향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시기이다.

<표 12> 1970년대 본관 파사드의 디자인 표현

디자인 원리	균형대칭			대비					리듬					
	대칭균형			비대칭	형태	크기	면	양식	중첩	적층	분절	기둥	개구부	
	A	B	C											
빈도율 (%)	6.7	13.4	46.6	33.3	-	6.7	40.0	13.3	26.6	13.3	46.6	20.0 (13.3)	14.3	
형태적 구성	기하학적 구성				선형 구성									
구성	평면구성			입체구성		수평구성			수직구성					
빈도율	53.3			20.0		13.3			13.3					
건축 양식	고전												근대	
	박공	열주	아치	돔	3분법적구성	망대(망루)	멀론, 총안	필로티	평지붕					
빈도율	-	13.3	6.7	-	-	-	-	-	-	-	-	13.3	93.2	

기둥 : 00.0(00.0) 기둥과 벽의 일체형과 분리형을 포함(분리형)

### 4.5. 1980년대

1980년대에는 미국에서 시작된 탈근대주의 즉 박스형태의 근대 건축에서 벗어나고자 장식성을 부여하는 포스터모던 건축이 한국에 전파되면서 모더니즘에서 벗어나고자 시도하던 시기이다. 이 시기의 디자인 원리는 이전 시기와는 달리 디자인 원리가 고르게 적용되었으나 분절에 의한 리듬감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형태적 구성방법은 기하학적 구성과 선형구성 모두 적

17) 강혁, Ibid., p.299



용되었고 입체구성에 의한 파사드의 표현은 이전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전과 비교하여 수직구성의 표현은 감소하였으나 수평구성은 증가하고 있다.

건축양식은 근대건축을 탈피하고자 하는 경향으로 고전양식의 요소들이 1970년대 보다 다소 높게 적용되었다. 필로티는 이 시기에 가장 많이 적용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평지붕의 적용사례는 다소 낮아졌다.

<표 13> 1980년대 본관 파사드의 디자인 표현

디자인 원리	균형대칭			대비				리듬				개구 부	
	대칭균형			비대칭	형태	크기	면	양식	중첩	적층	분절		기둥
	A	B	C										
빈도율 (%)	31.8	18.2	27.3	22.7	4.5	13.6	31.8	13.6	27.2	13.6	45.4	40.9 (27.2)	-
형태적 구성	기하학적 구성				선형 구성								
	평면구성			입체구성		수평구성		수직구성					
빈도율	31.8			40.9		40.9		4.5					
건축 양식	고전								근대				
	박공	열주	아치	돔	3분법 적구성	망대 (망루)	멀론, 총안	필로티	평지붕				
빈도율	-	22.7	9.1	-	-	-	-	-	45.4	81.7			

기둥 : 00.0(00.0) 기둥과 벽의 일체형과 분리형을 포함(분리형)

#### 4.6. 1990년대

1990년대는 1980년대 시작된 포스터모던 건축의 영향이 지속되었으며 서구적 근대건축을 한국화하려고 시도한 시기이다. 또한 대학의 자율화로 인한 현상설계가 시행되어 다양하고 창의적인 건물들이 등장하였다.

이 시기의 디자인 원리는 전 시대와 동일하게 분절에 의한 리듬감이 가장 많이 표현되었고 적층에 의한 표현도 다소 타 연대보다 강하게 표현되고 있다.

형태적 구성방법에서는 입체구성이 두드러지게 표현되고 있으며, 건축양식적 측면에서는 3분법적 구성방법이 1개교에만 적용되었고 페디먼트(박공)의 적용은 현저히 감소되고 멀론과 총안에 의한 표현방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1970년대 가장 유행했던 근대건축은 80년대에 이르러 약세를 보이다 1990년대에 다시 고전주의 모티브가 도입되고 있다.

<표 14> 1990년대 본관 파사드의 디자인 표현

디자인 원리	균형대칭			대비				리듬				개구 부	
	대칭균형			비대칭	형태	크기	면	양식	중첩	적층	분절		기둥
	A	B	C										
빈도율 (%)	42.1	-	26.5	13.2	23.7	7.9	23.7	28.9	39.5	36.8	44.7	13.2 (10.5)	-
형태적 구성	기하학적구성				선형구성								
	평면구성			입체구성		수평구성		수직구성					
빈도율	18.4			60.5		-		26					
건축 양식	고전								근대				
	박공	열주	차이	돔	3분법 적구성	망대 (망루)	멀론, 총안	필로티	평지붕				
빈도율	23.7	23.7	21.0	5.3	2.6	2.6	-	23.7	63.1				

기둥 : 00.0(00.0) 기둥과 벽의 일체형과 분리형을 포함(분리형)  
대칭균형 A, B, C의 기타로 박스형태<표 18-서울시립대>가 18.2% 적용됨.

#### 4.7. 2000년대

2000년대에는 세계적인 건축가들의 참여가 높았던 시기로 다양한 건축물이 준공되었다. 대학건물에도 외국 건축가뿐만 아니라 국내 건축가들이 자신의 예술성을 담아 계획하였으며 이화여대나 배재대에서 그 사례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대학 본관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디자인 원리를 보면 양식적 대비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다음으로 중고형대칭의 적용이 높게 조사되었다. 단국대<표 16-2000년대>의 경우 중고형과 양고형의 절충형태이나 돔에 의한 중고형 대칭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다.

형태적 구성방법은 선형구성에 의한 표현은 나타나지 않으나 평면구성과 입체구성에 의한 기하학적 구성만 적용된 것을 알 수 있다.

건축양식적 측면에서는 평지붕은 70년대부터 분석항목 중 가장 적용빈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멀론과 총안을 제외한 고전주의 양식과 근대주의 양식이 고루 적용되고 있다.

<표 15> 2000년대 본관 파사드의 디자인 표현

디자인 원리	균형대칭			대비				리듬				개구 부	
	대칭균형			비대칭	형태	크기	면	양식	중첩	적층	분절		기둥
	A	B	C										
빈도율 (%)	66.7	-	6.7	26.6	20.0	26.6	53.3	66.7	59.9	6.7	46.6	33.3 (13.3)	-
형태적 구성	기하학적 구성				선형 구성								
	평면구성			입체구성		수평구성		수직구성					
빈도율	13.3			73.3		-		-					
건축 양식	고전								근대				
	박공	열주	차이	돔	3분법 적구성	망대 (망루)	멀론, 총안	필로티	평지붕				
빈도율	20.0	13.3	20.0	6.7	6.7	6.7	-	20.0	79.9				

기둥 : 00.0(00.0) 기둥과 벽의 일체형과 분리형을 포함(분리형)

### 5. 결론

최종 조사대상 107개 대학본관 파사드에 나타나고 있는 디자인 원리, 형태적 구성방법, 건축양식의 요소에 대하여 적용이 높았던 시기와 각 연대별 파사드에 적용되었던 디자인 요소들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디자인 원리, 형태적 구성방법, 건축양식적 측면의 세부적인 항목에 대한 적용빈도가 높았던 시기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의 <표 17>과 같다.

중고형 대칭은 1940년대 이전, 양고형 대칭은 1960년대, 1970년대에는 비대칭적 균형이 가장 많이 적용되었다. 대비는 1940년대 이전에 형태대비가 강하게 표현되었고 크기, 면, 양식대비는 2000년대에 강하게 적용되고 있다. 그 외 연대에서는 대비에 의한 표현이 약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리듬에 있어서는 1940년대

<표 16> 분석항목 별 대학문관 파사드 현황

구분		20-4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디자인 원리	면역 대칭	(A)  고려 (34)	한양 (57)	광운 (64)	서울교육 (77)	창원 (83)	경성 (97)	선문 (02)	
		(B)  이화여 (35)	한국외국어 (57)	경주 (69)	인하 (71)	대구교육 (80)	-	-	
		(C) -	관동 (57)	-	영남 (77)	송실 (88)	동신 (93)	부경 (00)	
		비대칭적 관형	-	동국 (58)	-	경기 (70)	한국원 (89)	한세 (99)	남부 (05)
	대비	형태	고려 (34)	한국외국어 (57)	경북 (60)	-	호남 (80)	부산가톨릭 (97)	인천 (07)
		크기	이화여 (35)	조선 (51)	-	서울신학 (74)	상명 (85)	광주여 (92)	-
		면	-	-	중앙 (67)	서울교육 (77)	수원 (88)	경북외국어 (97)	목포해양 (07)
		양식	-	-	-	서울신학 (74)	상명 (85)	한려 (95)	극동 (07)
		중첩	연세 (27)	관동 (57)	동덕 (67)	서울교육 (77)	세종 (81)	동명 (97)	인천 (07)
	리듬	적층	-	-	-	서울신학 (74)	-	대구 (94)	신경 (05)
분절		연세 (27)	경희 (56)	경북 (60)	서울교육 (77)	대구가톨릭 (87)	강릉 (95)	-	
기동		-	-	전주 (64)	인하 (71)	-	광주 (93)	인천 (07)	
개구부		-	서강 (59)	서울여 (60)	영남 (77)	-	-	-	
기하학적 구성		-	동국 (58)	중앙 (67)	명지 (76)	한림 (82)	서울시립 (90)	강원 (05)	
형태적 구성 방법	입체	-	관동 (57)	경북 (60)	서울교육 (77)	호남 (80)	동양 (96)	한국해양 (07)	
	수평	-	-	중앙 (67)	해양 (75)	덕성 (84)	-	-	
	수직	-	-	-	성신여 (78)	경상 (81)	울산 (96)	-	
	양식	광주교육 (39)	한양 (57)	경북 (60)	-	-	초당 (94)	한북 (03)	
양식	고전	열주	-	-	인하 (71)	웅인 (84)	성균관 (99)	한북 (03)	
		아치	연세 (27)	조선 (51)	동덕 (67)	서울신학 (74)	상명 (85)	협성 (97)	강원 (05)
		돔	-	-	경북 (60)	-	-	경운 (96)	단국 (07)
	근대 (모더니즘)	3분법적 구성	-	경희 (56)	-	-	-	계명 (96)	한북 (03)
		멀린과 총안	고려 (34)	-	동덕 (67)	-	-	-	-
		망대	-	-	-	-	-	광주 (83)	부경 (00)
	필로티	필로티	-	-	-	서울 (74)	대구한의 (87)	초당 (94)	단국 (07)
		평지붕	-	동국 (58)	중앙 (67)	-	경일 (95)	강원 (05)	

<표 17> 각 분석항목이 본관 파사드에 우세하게 적용되었던 시기

구분		~4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디자인 원리	균형 및 대칭	대칭 A	●						
		B		●					
		C			●				
	비대칭 균형				●				
	대비	형태	●						
		크기							●
		면							●
	리듬	양식							●
		중첩	●						
		적층						●	
분절		●							
기둥					●				
형태적 구성	기하학 적구성	평면구성			●				
		입체구성						●	
	선형 구성	수평구성		●					
		수직구성			●				
양식	고전	페디먼트	●						
		열주		●					
		아치	●						
		돔			●				
		3분법적 구성			●				
		밀론·총안			●				
	근대	망대	●						
		필로티					●		
		평지붕				●			

이전 본관 파사드에는 중첩과 분절의 적용이 강하게 표현되었다. 모더니즘 건축이 강하게 표현된 1970년대에는 기둥과 개구부에 의한 리듬감이 표현되었으며, 적층은 1990년대에 표현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형태적 구성 방법에서는 1960년대까지는 선형구성에 의한 표현이 우세하다가 1970년대부터 기하학적구성의 표현이 높아졌다. 건축양식적 측면에서도 형태적 구성방법과 같이 1960년대까지 고전양식의 모티브 적용이 우세하였으나 1970년대는 평지붕, 1980년대는 필로티에 의한 근대주의 건축의 모티브에 대한 적용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디자인 원리, 형태적 구성방법, 건축양식에 대한 각 연대별 디자인 특성을 알아본 결과는 다음 <표 18>과 같다.

<표 18> 대학 본관 파사드의 연대별 디자인 특성

구분	~4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디자인 원리	균형· 대칭 (중고형) 리듬 (중첩, 분절)	리듬 (중첩)	균형· 대칭 (중고형)	균형· 대칭(C), 리듬 (분절)	리듬 (분절)	리듬 (분절)	대비 (양식)
형태적 구성	-	입체구성 수평구성	입체구성	평면구성	입체구성 수평구성	입체구성	입체구성
건축 양식	박공, 아치, 밀론· 총안	박공, 열주, 3분법적 구성, 평지붕	박공	평지붕	평지붕	평지붕	평지붕

1940년대에는 중고형 대칭, 중첩, 분절에 의한 리듬과 박공, 아치, 밀론과 총안에 의한 고전양식의 모티브가 적

용되었던 시기이며, 1950년대에는 중첩에 의한 리듬과 입체 및 수평구성에 의한 형태적 구성방법이 적용되었다. 특히 이 시기에는 그리스·로마 건축의 구성요소가 고르게 적용되었으며 모더니즘 건축의 모티브인 평지붕이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에는 중고형 대칭, 입체구성과 박공이 가장 많이 적용되었다. 1970년에는 대칭성 또는 중심성은 있으나 일부 요소가 비대칭적인 형태, 분절에 의한 리듬, 평면구성과 평지붕의 적용이 높게 조사되었다. 1980년대에는 분절에 의한 리듬과 입체구성과 수평구성이 고르게 적용되었다. 1990년대와 2000년대에는 디자인 원리의 적용정도는 차이가 있으나 형태적 구성방법은 동일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1970년대부터 건축양식은 평지붕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학본관 파사드의 전체적인 디자인 표현은 60년대까지 디자인 원리에 의한 표현 방법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1970년대부터는 근대 건축양식에 의한 디자인 표현방법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분석항목의 적용빈도가 높은 연대와 각 연대별 적용빈도가 높은 분석항목을 도출함에 대학본관 파사드에 나타나고 있는 디자인의 요소에 의한 디자인 원리, 형태적 구성방법, 건축양식에 대한 시대적 흐름이 파악되었다. 자료 확보의 어려움으로 전체 대학교가 아닌 일부 대학만을 조사한 한계점은 있으나 대학본관 파사드에 디자인 구성요소를 적용하여 디자인 특성을 파악하는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1. 강철민·김정재·이광영, 대학교 본관 파사드의 형태적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16권 8호, 2000
2. 강혁, 근현대건축연구의 흐름과 시대성(한국건축사 연구 2 이론과 쟁점), 도서출판 발언, 2003
3. 김정재, 건축의장론, 기문당, 2002
4. 김홍기, 건축디자인론, 기문당, 2002
5. 도규환, 건축조형의장, 도서출판 서우, 2002
6. 문지원·하재명, 캠퍼스 보행자동선 개선을 위한 보행행태 분석에 관한 연구; K대학 캠퍼스 사례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18권 10호, 2002
7. 방일영문화재단, 우리건축 100년, 현암사, 2001
8. 신성영, 건축의장론, 구미서관, 2004
9. 한국건축사 연구 1 분야와 시대, 도서출판 발언, 2003
10. 한국건축사 연구 2 이론과 쟁점, 도서출판 발언, 2003
11. 홍대형, 한국의 건축문화재 서술편, 기문당, 2001
12. CHING, FRANCIS D. K., 강병희 외 44명 공역, 건축·인테리어 시각표현 사전, 도서출판 국제, 1999

[논문접수 : 2010. 06. 27]  
[1차 심사 : 2010. 07. 21]  
[2차 심사 : 2010. 08. 03]  
[게재확정 : 2010. 08. 13]